

인간다운 삶 지향하는 종교의 한 모습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펴낸 윤청광씨

인류 역사의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는 종교의 이름으로 야만과 반인륜이 횡행했다. 무자비한 학살과 폭력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스니아 내전에도 중세 암흑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시하는 폐쇄적인 신앙태도는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경과 성경의 가르침이 비슷한 것은 모든 종교가 구현하려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법구경》을 읽고 불경에 빠져버린 윤청광씨(58, 동국출판사 대표)는 불경이 성경과 유사한 대목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슷한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표시하기 시작했다.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서울출판미디어)는 그 결과물이다.

“피상적인 가르침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화는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예수가 ‘수카라’라는 마을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석가모니의 제자 아난다가 걸식을 하면서 천민계급의 딸 ‘마이타가’를 만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 우물가에서, 물을 매개로, 몸의 귀천을 떠나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까지 똑같다.

“가르침을 깨닫고 이행하지 못하는 쪽정어와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라는 마태복음의 비유는 《아함경》에 나오는 깃자쿠우타산에서의 설법내용과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은 학자가 이미 여럿이다. 기독교보다 500년이나 앞선 불교가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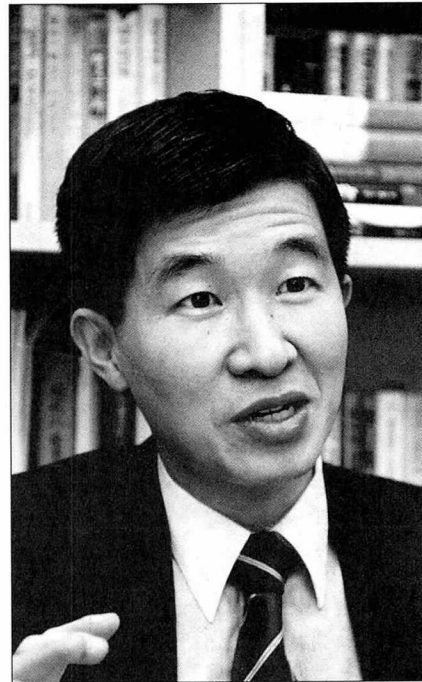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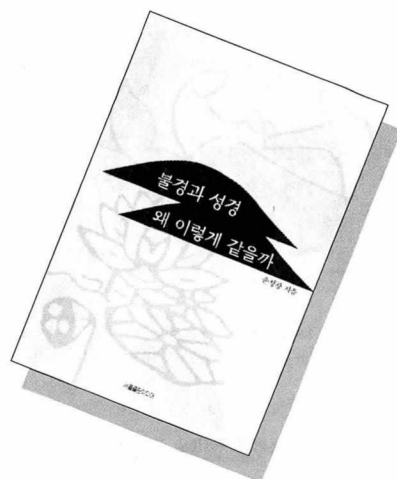
않는 예수의 17세부터 29세까지의 행적을 인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찰 방화사건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른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장승이 베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종교의 아집과 독단이 빚어온 피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는 ‘신앙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 지난해 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1천년 전의 무자비한 타민족 말살과 타종교 파괴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교간의 관용과 공존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아름다운 심성으로 인간답게 사는 삶을 지향할 따름이다.

“일반인들이 불경을 잘 모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불경 속에는 심오한 삶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불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를 펴내 호응을 얻은 윤청광씨는 성경과 불경 비교작업을 계속하면서 불교대화회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 이현주 기자



기업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교정 호소

《기업가》 펴낸 공병호씨

지식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보통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에 젖은 지식인이 만들어낸 말과 글로 끊임없이 세뇌받으며 살고 있다. 지식인들은 부를 창출하고 운용하는 ‘기업가’를 대체로 차갑게 바라보며,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통사람(근로자)들 또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유용성을 주창해온 경제학자 공병호(39, 자유기업센터 소장)씨는 《기업가》(자유기업센터)를 통해 시각 교정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인들이 기업가를 굴절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부의 축적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합니다.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들(Luddites)을 선동하듯 하는 언행은 현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 역시 지식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굳이 ‘지적 기업가’라고 말한다. 자유기업센터를 설립한 것은 지식인으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일종의 ‘창업’을 한 것이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결코 중도 노선을 걸을 수 없는 기업가 입장에 들어선 그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론을 목청껏 외쳤다. 목소리가 큰 만큼 돌아오는 메아리 역시 컸다. 일각에서는 그를 기업(재벌)의 대변인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론이 제기되는 것도 시장의 논리입니다. 경제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경제론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뒤로 12권의 저서를 펴냈다. 그 중에 하나인 《기업가》는 기업·기업가 속내를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를 단 한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기업가의 경영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억압된 경제구조에서 비롯되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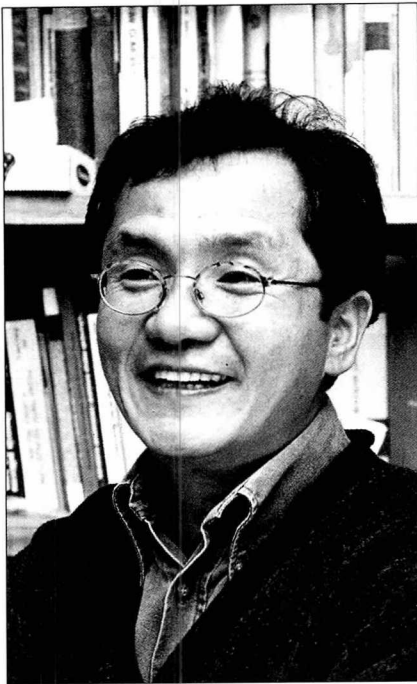
조선의 상공업 발전과정을 예로 들면서 당시 정부주도의 경제적 폐해가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오늘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부의 억압적 제도로 의도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면이 많다고 보고 있다.

“기업가는 포착·판단·실천까지의 위험을 담보로 경제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맺은 결실 때문에 결국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지요. 이런 기업가들에게 무리한 사회적 공헌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경제위기의 단초는 정부의 개입에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가 경제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갈등과 자제》를 펴낼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한 인문주의자의 역사체험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 펴낸
임지현 교수

“주류 서양사에서는 폴란드를 서유럽의 변경지대로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방식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진보진영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파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하는 임교수는 “사회주의 이론을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틀 속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진보진영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고 말한다.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질식시킨 ‘실증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서 개인의 실존적 문제에서 출발하는 ‘인문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삶과 이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인문적 가치는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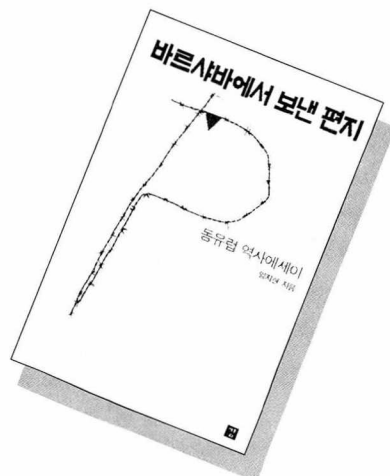
역사 에세이 형식으로 인문주의적 사유의 변경을 넓힌 이 책에 이어 올해 말경 본격적인 역사저술로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폴란드 민족해방운동사》를 출간한다. ‘우리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좌절을 통해 인간해방의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

서강대 임지현 교수(39)는 1990년 12월 초 바르샤바에 첫발을 디뎠다. 1989년에 ‘인민공화국’이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고 외친 인민들에 의해 무너진 후 최초의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였다. 임교수가 본 것은 당시 수상이었던 마조비에츠키의 선거포스터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주변의 담벼락에 그려진 반유대주의의 낙서였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에서 본 반유대주의의 낙서는 한 역사학자를 망연자실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여처구니없게도 놓쳐버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현상으로서의 현실 사회주의란 이념적 당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현실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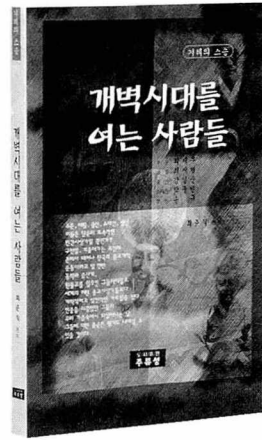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교육부의 해외파견교수로 폴란드에 머물면서 쓴 글들을 모은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강)는 ‘탈이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념의 고민’을 나누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임교수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포장 뒤에 웅크린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음험한 정치권력을 역사체험을 통해 들려준다.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를 연결시킨 《마르크스 엥겔스와 민족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교수가 폴란드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기를 읽으면서부터였다. 로자의 전기에서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의 민족문제 논쟁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천착해가는 과정에서 폴란드 민족운동 전체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出版으로 文化의 新世紀를 열겠습니다”
도서출판 주류성의 신간 안내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



최준식 편저, 신국판 320면 7,500원

수운 최제우, 해월 최시형, 증산 강일순, 소태산 박중빈, 정산 송규. 이들은 단순히 토속적인 민간 사상가일 뿐인가? 구한말, 기울어 가는 조선의 촌에서 태어나 한국의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할 만한 동학파 증산계, 원불교를 일으킨 그들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종교 사상가들보다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폈다.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를 출간한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가 엮은 거례의 스승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에서 그들에 대한 올곧은 평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인도차이나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오스카 베겔 지음, 조흥국 옮김, 신국판, 287면 8,000원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답의 땅 인도차이나. 이 책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중심 3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인도차이나 지침서이다. 특히 인도차이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미리 알아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변혁과 변화를 분석하여 자료가 부족한 이들 나라의 진면목을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필독서이다.

이 슬 램

H.A.R. Gibb 지음, 이희수·최준식 공역, 신국판 228면 8,000원

이슬람권은 신자가 11억 이상, 유엔 회원국은 55개국에 이른다.

이 엄청난 문화권을 소개하는 이슬람 개설서는 거의 없다.

유럽 동양학의 대가인 해밀턴 알렉산더 킵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익히는 이슬람학의 고전이다. 이슬람 문화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희수, 최준식 두 교수의 정확한 번역이 돋보이는 이 책은 이슬람교의 본질을 편견없이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와 사상, 철학까지도 역사적 맥락에서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이슬람 저술이다.

도서출판 주류성(周留城)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5-5
전화 567-1024 팩스 553-0656